# 기 념 사

종단의 현대사를 담은 불교신문 창간 50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원로·대덕 스님들과 정관계 인사 여러분, 그리고 불교신문을 아껴주는 독자님들 모두에게 발행인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총무원장 소임을 맡으면서 청담대종사, 경산대종사를

비롯해 현대의 불교를 일으킨 스님들을 찾아 예경을 올리며 종단이 나갈 방향을 생각한 바 있습니다. 1960년 창간된 불교신문은 그 어른들의 노력으로 창간되고 성장했으며, 종단을 대변하는 종교계 최고의 언론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때론 종단의 잘못된 방향을 질타하고, 때론 불교가 지향해야 할 점을 지적하며, 신도들에게는 불교의 가르침과 포교의 신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불교신문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종단의 상황에 따라 적지

않은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화 운동의 와중에서는 자금부족으로 김춘강, 이한상 거사가 한때 운영을 맡기도 했고, 군부에 의해 불교가 짓밟힌 10·27법난 때는 강제 폐간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종단 분규로 인해 기자들이 단체로 신문사를 떠나야 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련을 겪은 불교신문은 이제 종단이 안정되면서 사회에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불교가 세상과 소통하고 종단과 사부대중의

화합을 이끄는 사회의 목탁, 불교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새로운 가치관과 외국의 문물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변화는 우리의 문화와 역사, 정신을 바르게 이해한 토대위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불교신문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던질 화두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개인화되고 고립된 한명 한명을 인드라의 구슬과 같이 이어주고,

서로를 반추할 수 있는 거울이 되어 주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불타정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정법을 펼친다는 사시를 따라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사부대중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불기 2554년 11월 9일

불교신문사 발행인 ·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